

'6경기 무승' 광주FC, 인천 상대 반전 노린다

K리그1 14라운드 20일 원정경기 최근 2경기서 11골 '인천 킬러' 공격 축구 좋지만 정밀함 떨어져 무승 탈출 위해 골 결정력 높여야

광주FC가 '좋은 기억'을 살려 무승 탈출에 나선다. 광주는 20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1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최근 결과가 좋지 못하다. 시즌 내내 '광주스타일'의 공격 축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경기를 압도하고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앞선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도 상대의 역습에 흐름을 내주면서 0-2 패배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6경기 연속 무승이 계속됐다.

6경기에서 모두 광주는 '공격 축구'로 저력은 보여줬지만 단 2득점에 그치면서 2부 4등의 부진에 빠졌다. 승점 쌓기에 비상이 걸리면서 순위도 9위까지 내려왔다.

반전이 필요한 광주는 빼듯한 일정까지 앞두고 있다.

이번 인천전을 시작으로 24일 서울로 가서 서울 이랜드와의 FA컵 대결을 하게 되고, 28일에는 수원FC와의 원정이 기다리고 있다. 원정 3연전 강행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인천전 반전이 중요하다.

가장 큰 숙제는 '골 결정력'이다. 스트라이커 허을, 이근희, 산드로를 필두로 이희균, 엄지성, 아사니 등 측면 자원까지 공격에 나서 슈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밀함이 떨어진다.

브라질 피니셔 토마스가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13일 대구전을 통해 그라운드에 돌아온 만큼 공격진의 무게감은 더해졌다. 과감한 공세로 득점을 만들고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한다.

광주는 또 정호연과 이순민, 이강현 등 미드필더진의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중원을 장악해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계산이다.

인천은 3승 4무 6패로 승점 13점을 기록, 10위에 올라있다. 9위 광주와 승점 1점 차다.

이명주와 신진호, 김도혁 등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를 보유한 인천에는 제르소, 송시우, 천성훈, 김보섭, 에르난데스 등 앞짜배기 공격진도 눈에 띈다. 또 지난 라운드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이다.

상대전적으로 보면 7승 12무 6패로 팽팽하게 맞선 모습이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 시즌 FA컵 3라운드에서 만나 6-1 승리를 거뒀고, 앞선 4라운드 홈경기에서는 5골을 폭발시키면서 5-0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광주가 앞선 두 경기의 뜨거웠던 감을 떠올리면서 '결정력' 숙제를 풀고 승점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6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광주FC가 20일 인천원정에 나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원발의 달인' 아사니가 골 사냥 전면에 선다. <광주FC 제공>

김주형 "운 안 통하는 코스, 실력으로 승부"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출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김주형이 "코스가 까다롭지만, 제 실력을 발휘하면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김주형은 18일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 컨트리클럽(파70)에서 개막하는 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4월 시즌 첫 메이저 마스터스에서 공동 16위로 선전한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서도 상위권 입상을

노린다. 공동 16위는 김주형의 메이저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이다.

김주형이 PGA 챔피언십에 나오는 것은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컷 탈락했다.

샘 번스(미국), 아브라함 안세르(멕시코)와 한조로 1라운드를 치르는 김주형은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스가 까다롭지만 설계가 워낙 잘 돼 있어 좋은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이라며 "세 번째 출전이라 감회가 새롭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형은 2020년 이 대회로 메이저 대회 데뷔전을 치렀고,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세 번 출전하는 대회 역시 올해 PGA 챔피언십이 처음이다.

마스터스는 올해 처음 나갔고, US오픈과 디오픈은 지난해 한 차례 출전한 것이 전부다.

2002년생 김주형은 PGA 투어에서 지난해 2승을 거두며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는 선수다.

김주형은 "모두에게 어려운 코스인데, 대신 좋은 샷이 나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온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런 곳에서는 운이 통하지 않고, 페어웨이와 그린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은 "메이저 대회라 하루가 길 것"이라며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이나 체력적인 부분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흠신' 나달, 프랑스오픈 불참할 듯... 은퇴 가능성도

테니스 '양강 시대' 저무나

다음주 알카라스에 세계 1위도 내쫓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덴마크의 '신성' 홀게르 루네(7위)에게 2연패 하며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770만5780 유로) 8강에서 탈락했다.

조코비치는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8일째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루네와 2시간 19분 승부 끝에 1-2(2-6, 6-4, 2-6)로 졌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이 대회 2년 연속이자 통산 7번째 우승도 전을 일찍 멈췄다.

조코비치는 올 초 호주 애들레이드 대회와 호주오픈에서 잇따라 정상에 선 뒤로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다음 주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알카라스는 이번 대회에서 3회전 탈락했다.

지난해 11월 파리 마스터스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제압하고 우승했던 루네는 6개월 만에 조코비치 상대 연승을 기록하며 이 틈감을 높였다.

루네는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에서 2승 1패로 앞서나갔다.

루네는 프란치스코 세룬돌로(31위·아르헨티나)를 2-0(7-6(7-5), 6-4)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오른 카스페르 루드(4위·노르웨이)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2003년생으로 만 20세인 루네는 188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강한 서브와 공격적인 리턴이 좋은 선수다.



조코비치

빠른 발을 앞세운 수비에 강점이 있는데, 이게 조코비치를 상대로 빛을 발했다. 빠른 코트 커버로 상대의 결정구를 여러 차례 무위로 돌려 노장을 지키게 했다.

조코비치는 경기 뒤 '루네에게 조언을 해 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루네에게 팀을 달라고 해야겠다. 그는 날 두 번이 나 이겼다. 루네는 정말 잘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알카라스에게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 1위가 될 알카라스는 대단한 테니스를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는 것은 테니스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매체 "영당이 부상 회복 못해"

'흠신' 라파엘 나달(36·스페인)이 이달 개막하는 메이저 테니스대회인 프랑스오픈에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나달이 영당이 근육 부상에 회복하지 못해 프랑스오픈 출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1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마르카에 따르면 나달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나달 아카데미에서 진행할 기자회견에서 대회 불참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랑스오픈은 나달의 '안방'과도 같은 대회다. 처음 출전한 2005년 대회와 지난해 대회 우승을 포함해 14차례나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건 딱 4차례에 불과하다.

나달이 프랑스오픈에 출전하지 않는 것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나달은 지난 1월 호주오픈 2라운드에서 매켄지 맥도널드(미국)에게 져 조기 탈락한 뒤 다섯 달째 코र्ट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왼쪽 영당이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나달은 부상 부위에 두 차례 시술을 받는 등 회복에 집중해왔다.

부상 여파로 연달아 9개의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 불참한 나달의 랭킹은 현재 14위까지 내려갔다.

프랑스오픈에도 불참하면 130위 밖으로 '수직 낙하'한다. 나달이 130위 안에 못 드는 것은 프로 3년 차이던 2003년 3월 이후 처음이 될 터다.

7월 개막하는 Wimbledon 출전을 위해 와일드카드를 받아야 하는



나달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지난해 은퇴한 가운데 남자 테니스를 호령한 '빅3' 중 노바크 조코비치만 이번 프랑스오픈에 출전할 전망이다.

나달과 조코비치는 통산 메이저 대회 우승 횟수에서 22회로 최다 기록을 나눠 가지고 있다.

마르카는 나달이 은퇴를 발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마르카는 "부상이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체육인인 나달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드리운다"면서 "마지막 말을 언급할 사람은 나달뿐"이라고 썼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2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드림, 가신: 바람의 아이
3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울지마 엄마
4관	존 워 4, 슴슴의 삼각형, 울지마 엄마
5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스페인의 문단속, 존 워 4, 스토리머
6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9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닌자 배꼽수비대
7관	썬더캐틀
8관	썬더캐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

즐거움 문화산책